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연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선과 색채를 통한 주관적
장소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성 수

선과 색채를 통한 주관적
장소성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연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성 수

인 준 서

박성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18년도 본인의 석사 학위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을 중심으로 선과 색을 통한 표현과 장소성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실제로 방문했었던 장소의 풍경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시선으로 회화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논문은 작업을 통해 주관적인 장소나 이동한 장소에 감정을 실어 그 의미를 전달하고 보는 이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움직임은 잠깐의 순간이라도 주관적으로 크고 작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인간에게 머물거나 활동하는 공간인 동시에 주관적 의미를 두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 본인은 그것이 인간본능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본인은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처럼 이동하는 장소(거리)에서 한 순간 이나마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 풍경을 통해 과거를 되짚기도 한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변화에 반응하여 장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다. 시간이 박제된 것 같은 공간과 소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인은 작업 안에 규정짓지 않은 자유로운 선의 움직임을 그리며 다양한 색상으로 레이어(Layer)를 만들어 겹겹이 중첩함으로써 내면의 감정과 리듬(Rhythm)을 강조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도 공간이나 장소는 인간의 심적 작용이 일어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어왔다. 그러므로 공간(장소)은 보통 사전적 개념으로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좁혀 개인적 관점으로 돌아보면 나만의 유일한 단일 공간, 감정을 유발하는 주관적 장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나’라는 개인에게 의미로 남는 장소와 그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장소에 따라 드러나는 감정의 색이나 면의 형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화면 안에 시각화할 것인가를 탐구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작품 분석을 통해 작업의 방법과 표현적 측면을 재구성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객들도 각각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장소가 자신에게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가를 자문(自問)하게 하고 싶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간 혹은 장소가 주는 각별한 감정에 의미를 두어 그곳에 대한 개개인 고유의 특별함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 다른 측면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공간, 장소, 풍경 속에서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3
1) 개인적 공간	3
2) 장소의 중요성	5
3) 개인적 장소의 목적성	6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8
1) 선, 선의 중첩, 디지털프린트	8
2) 색, 감정	9
3) 주관적 장소를 통한 화면구성	10
3. 작품 분석	12
‘Motion - 내가 이동한 장소를 드로잉하다.’ 시리즈	12
III.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Motion - restart>, 110 × 74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2] <Motion - ing>, 100 × 65.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3] <Motion - hate>, 74 × 110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4] <Motion - restart2>, 110 × 65.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5] <Motion - looking for things>, 65.1 × 100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6] <Motion - passion>, 163.7 × 72.7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7] <Motion - shopping>, 200 × 65.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8] <Motion - really hate>, 91 × 72.7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9] <Motion - hate2>, 100 × 72.7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 [작품 10] <Motion - ←→>, 60.6 × 218.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도 판 목 차

[도판 1] [도판 1, 2, 3]의 실제 풍경

[도판 2] 본인 작업 과정 1

[도판 3] 본인 작업 과정 2

[도판 4] 본인 작업 과정 3

I. 서 론

본인이 장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원광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할 할 때였다. 인간이라면 계속 한 곳의 지역에서만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여러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 본인은 원광대학교에서 학부 시절부터 조교로 있을 때까지의 있었던 많은 일을 그저 머릿속에서만 남기고 기억할 수는 없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인간처럼 본인도 ‘나’에게 있었던 일을 장소를 통해 기록하고 싶었다. 본인이 지나간 장소를 디지털 매체(사진, 영상)를 이용하여 누구나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선으로 남겨둘 수 있었지만, 본인이 있던 자리를 개인적 의미를 두어 주관적 시선으로 보고 나만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장소는 생활세계가 직접 경험되는 현상공간이다. 그래서 장소는 의미, 실제 사물, 지속적인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며, 때로는 사람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인간 실존의 심오한 중심이 된다.¹⁾

당연한 말이지만 공간이 있어야 공간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특히 감정이 섞인 공간인 장소에서는 더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장소라는 소재와 그에 내재된 주제로 개인적 공간, 심리를 나타내며 그 의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경험이 들어간 주관적 장소에 대하여 연구하고 표현한 이미지(Image)를 분석한다. 이처럼 장소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이 갖고 있는 의미를 확장시키려고 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전개’로써 개인적 공간, 장소의 중요성, 개인적 장소의 목적성을 가지고 본인이 장소의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서술하

1)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2005, p.287-p.288.

고자 한다.

2장에서는 ‘작품의 조형적 전개’를 통해 본인의 작품에서 조형적인 특성을 ‘선, 선의 중첩, 디지털프린트(Digital print)’, ‘색, 감정’, ‘주관적 장소를 통한 화면구성’으로 나누어 세 가지로 표현 방법을 설명한다.

3장은 ‘작품 분석’에서 ‘Motion - 내가 이동한 장소를 드로잉하다.’ 시리즈를 통해 본인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장소의 시점과 개인적 의미를 서술하며 각 작품을 통해 함축하고 있는 조형적 측면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주관적 장소에 대한 개인 주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학문적 성과와 앞으로 본인의 작업에 대한 장소성 연구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전개

1) 개인적 공간(個人的空間)

개인적 공간의 사전적 의미²⁾를 찾아보면 ‘개인의 몸 주위에 있는 타인과의 경계가 되는 공간’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만큼 나를 둘러싼 극히 주관적인 선을 나눔으로써 구별하고 있다. 본인의 작업은 이렇게 ‘나’라는 개인의 로드맵을 화면에 구성함으로써 장소와 감정 간의 교류를 표현한 것이다

장소는 인간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융합된 것이고, 우리가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깊은 중심이다. 장소는 고유한 입지, 경관, 공동체에 의하여 정의되기보다는,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정의된다.³⁾

본인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졸업한 후 조교로 근무했었다. 본인에게서 조교라는 직책은 첫 사회생활과 스스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작가로서의 출발점임을 의미했다.

조교로 근무하는 동안 본인은 학교와 집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위해 여러 곳을 갔었다. 이렇게 여러 장소를 다니며 활동한 거리를 본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었고 이를 작업으로 구성하여 개인적 의미를 두고 싶었

2) 네이버 국어사전 “개인적 공간 個人的空間”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4891526807640028fa45a08ca4af723>

3)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2005, p.287.

다.

본인이 본격적으로 장소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는 고정적으로 원광대학교에만 계속 있을 수 없었다는 것에 기인한다. 조교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본가(경기도 성남시)로 돌아가야 했는데 본가와 학교는 쉽게 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통학하기 어렵고 거리가 있는 만큼 본인이 첫 사회생활을 했던 곳곳의 공간들의 순간을 남기지 않으면 후회할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통학을 위해 또는 업무를 위해 수동적으로 기계처럼 이동하고 아무렇지 않듯 별 의미 없는 움직임이나 잠깐의 순간도 기억에 남았으면 했다. 이러한 바람은 본인이 본가로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발전했다.

이후 더 큰 출발과 미래를 위해 서울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고 본인의 작업은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고 색의 의미를 더해 나만의 단일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본인은 장소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공간을 위한 구체적인 선과 면의 다양성과 색을 입히며 내가 경험한 ‘그 시간’이 좀 더 친숙해지기를 원했고 주관적 의미도출을 위해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또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고 활동함으로써 본인은 원래 작업했던 장소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공간을 재구성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경험, 감정, 기억, 상상, 현재 상황, 의도 등은 한 사람 속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사람은 여러 가지 매우 다른 방식으로 특정 장소를 볼 수 있다⁴⁾.

하나의 장소를 주관적 시선으로 변화 모색에 중점을 둔 것은 일을 위한 로드스토리의 목적이 있어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 공간을 지날 때의

4) 앞의 책 p.130

감정은形形色색 다른 것이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거리는 계절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환경적인 다양함을 경험한다.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마천루처럼 솟은 도시의 건물과 직진하는 도로 등은 본인이 그곳에 존재했던 것만으로 유의미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본인뿐만이 아니라 작품에서도 묻어나와 관객과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나중에라도 다시 왔을 때 풍경을 통해 본인이 있었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장소는 시간이 지나면 장소의 명칭(주소)은 그대로지만 본인이 있던 시절에 존재했던 것(건물, 경로)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고 낡은 요소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장소는 독특한 역사적 구성 요소를 지닌다.⁵⁾

위의 글처럼 본인은 본인이 이동할 당시 공간, 장소, 혹은 거리의 한 시점을 주관적 시선으로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그 시간, 그곳에 본인이 존재했다는 감정의 심상표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2) 장소의 중요성

인간에게 장소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이 곧 장소이며 인간 존재를 말하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인간은 한 곳에 정착생

5) 앞의 책 p.28

활을 하고 의식주(衣食住)⁶⁾가 생김으로 하여 장소에 대한 애정이 발생한다. 이는 여러 문헌이나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내 땅에 대한 소유욕은 인간이 발달할수록 더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육체는 장소를 점유하며, 장소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하고 겪는다는 것은 움직임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장소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다.⁷⁾

본인은 장소가 있음으로써 사람의 구성단위(개인, 가족, 집단)가 이루어지고, 환경과 문화에 따라 음식, 지리적 단위(시, 도, 국가)가 생겼다고 배웠다.

장소가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사물, 어떤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관계를 맺고,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장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 공동의 공간에서도 공동의 목적성을 가진 행위를 제외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감정은 모두 다르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장소는 지금의 본인을 있게 해주었고,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있다는 것과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의 의미는 있기 때문에 주관적 장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3) 개인적 장소의 목적성

인간에게 공간 혹은 장소는 행동. 행위(行爲)⁸⁾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6) 의식주(衣食住)는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Naver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6785c2507064ea8ac6539e1250faf1e>

7) 에드워드 쉘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논형, 2005, p.67.

특히 장소는 소통의 한 체계로써 바라볼 수 있고 소통은 서로 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행동에는 무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인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본인은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장소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소는 인간에게 알맞은 환경을 통해서 삶의 질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인간과 거주 환경 사이의 관계에 맞출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관계도 촉진할 수 있다.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변형, 변화, 보존 등 끼어드는 모든 행위이다.⁹⁾ 이와 같이 장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며, 장소에 대한 인식은 개인, 사회 집단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장소에 대한 인식이 다른 까닭은 사람들이 가진 지식 · 경험 · 정서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장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¹⁰⁾

그러므로 본인은 장소가 특정한 개인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장소로 인지할 수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시나 건물 등 장소를 이동하면서 무의미하게 기계처럼 이동하는 것 외에 주로 본인의 경우는 학교통학, 출퇴근, 재료를 구입하고자 떠나는 여정 등이 목적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행동하고, 개인적 장소를 구성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존재의 여부, 주관적 시선까지도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8)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행위의 의미는 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행위는 반사적(反射的)·본능적 행동과는 달리 이것저것을 잘 생각한 끝에 어떤 일(목적)을 하고자 결의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의미를 두고 하는 행동 즉, 행위에 대한 부분이 크지만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B%8F%99>

9) 주우, 「장소만들기 형성에 있어서 스토리 텔링이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중국 항주 인상·서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p.18

10) [네이버 지식백과] 장소 [場所] (Basic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사전, 2002. 2. 5., 이우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4783&cid=47334&categoryId=47334>

2. 작품의 조형적 전개

1) 선(線), 선(線)의 중첩(重疊), 디지털프린트

선은 점이 연속되어 이루는 기본 조형 요소로, 위치와 방향을 지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어떤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형태와 공간, 입체감, 자유로운 움직임, 다양한 속도감을 표현할 수 있다. 선 자체는 하나의 조형 활동 요소로써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다.

선은 사물이 윤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선 그 자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표현하며, 나아가 선이 조직되어 있을 때 리듬이 생긴다.¹¹⁾

본인의 작품에서 선은 석판화(Lithograph)의 기법으로 시작되었다. 석판화(Lithograph)는 각 레이어(Layer)를 판으로 만들어 한 장의 종이에 찍어내 하나의 이미지(Image)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본인은 석판화(Lithograph)를 통해 중첩의 이미지(Image)가 떠올랐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을 선택했다. 현재는 아쉽게도 2012년의 초기 석판화 작업이 없어 도판을 보여줄순 없으나 석판화의 장점인 한판에 여러 번 인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사기법을 종이위에 올려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의 감정을 보다 담백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일한 형태를 가진 선으로 중첩된 개인의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포토샵(Photoshop)을 통한 디지털프린트기법(Digital print)을 선택하였다. 석판으로 레이어(Layer)를 만들면 동일한 선의 판을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에 중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에 또한 디지털프린트(Digital print) 이용하면 본인의 드로잉(Drawing)을 본인이 원하는 위치에 배

11) 허버트 리이드(H.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69, p.51. (이영숙, 「선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p.10 재인용)

치가 가능하고 결과물을 미리 예측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본인이 이동한 장소와 움직임을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하기 위해 규정짓지 않은 자유로운 선을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어내고 이를 여러 겹으로 중첩함으로써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이루어진 장소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본인의 의도적인 선은 시각적인 중첩으로 전체화면 내에서 일어나는 공간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깊이 있는 중요한 유형이다. 대상의 중첩은 대상과 대상사이의 공간관계를 의식해주는 역할로 상하로서의 공간이 형성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¹²⁾ 또한 선을 여러 겹으로 중첩하면 경직된 모습이 아닌 동적인 이미지로 장소를 구성할 수 있다.

본인은 실제로 보이는 것 외에 본인의 주관적 장소를 보여줌으로써 일상에서 존재하는 친숙한 풍경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도판 1]

2) 색(色), 감정(感情)

색은 사전적 의미로 빛을 받은 물체가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물체의 빛깔로 정의된다. 색에 따라 인간은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인간의 감정은 색보다 훨씬 다양하다. 그래서 같은 색이라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색의

12) 한진현, 「선의 중첩에 의한 공간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13

영향은 늘 변한다.¹³⁾

본인의 작업에서 개인적 공간의 색선은 본인이 장소에 있을 때의 상태,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 색을 사용했다. 이는 본인이 이동한 장소의 형태를 강조하고, 본인의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느낀 감정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색이 없이 무채색(Achromatic color)으로만 선을 이용하여 장소를 구성했다면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누구나 지나치는 단순한 풍경을 드로잉(Drawing)한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도판 4 참고)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본인의 경우 목적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느끼고 확인하는 곳의 색이 경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색이 있음으로써 기억을 하게 되고, 색선을 사용하여 주관적 장소를 재구성함으로써 본인이 이동하고 행동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인간은 색을 시각적, 심리적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기도 한다. 색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색은 결국 인간탐구 그 자체인 것이다.¹⁴⁾

3) 주관적 장소를 통한 화면구성

본인은 대학생살을 마치고 조교로 근무하면서부터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경험했던 기억을 주관적 장소로 남기기 위해 이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작품 이미지는 본인이 직접 이동하고 느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인이 바라본 시선으로 직접 촬영하여 사용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주관적 장소의 화면구성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선으로 변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Layer)로 만들어 무채색(Achromatic

13)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p.34.

14) 김종욱, 「색상과 감정표현에 따른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3

colors)의 선과 색선을 중첩하고, 공간감을 나타내기 위해 그라데이션(Gradation)¹⁵⁾ 면을 같이 조합하여 나만의 단일공간으로 연출하고 구성한다.



[도판 2]



[도판 3]



[도판 4]

[도판 2]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포토샵(Photoshop)을 통해 1차과정의 선을 만든 것이다. 만들어진 선의 레이어(Layer)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주관적 시선으로 [도판 3]처럼 새로운 선을 재구성한다. 이를 가지고 다양한 색의 선의 레이어(Layer)를 만들어내고, 여러 개의 선으로 정지된 건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감정이 이입되어 움직이는 건물처럼 진동을 표현했다. 최종적으로 공간감의 형성을 위해 그라데이션면(Gradation)을 추가하고, 만들어진 이미지(Image)를 출력(Print)해 중첩된 레이어(Layer)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펜(Pen)을 사용했다. [도판 4]과 같이 한 화면에 장소를 연출하고 본인이 이동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공간을 형성했다. 선으로 그려진 형태를 인지하게 되었을 때 표현된 선의 움직임, 분위기, 감정을 함께 느낀다. 나아가 3차원적인 형태로 인식되면서 운동감과 크기, 무게, 깊이 등을 포함한다.¹⁶⁾

15) 어떤 색조, 명암, 질감을 단계적으로 다른 색조, 명암, 질감으로 바꾸는 예술 기법을 의미한다. 그라데이션을 통해 공간, 거리, 분위기, 부피, 곡선/곡면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7%B8%EB%9F%AC%EB%8D%B0%EC%9D%B4%EC%85%98>

16) 한국현상학회, 「예술과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2001. p.39-p.40. (성영미, 「선(線)으로 표현한 체험적 공간 연구」, 건국대학교, 2019, p.26 재인용)

3. 작품분석

‘Motion - 내가 이동한 장소를 드로잉하다’ 시리즈

본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장소를 가지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공간을 표현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동하는 일상의 거리를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공간을 연출하고자 했다.

선의 중첩을 통해 단순한 이미지로 보이지 않고 본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선을 여러 번 중첩하여 장소를 나타낸다.

작품을 본인만의 주관적인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한 개인의 공간, 색채를 통한 감정표현, 장소의 목적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개인의 공간을 그 공간 고유의 재질(나무, 시멘트, 벽돌) 색 등 공간 자체의 고유성이 대부분 상실되고 외곽선, 윤곽선만을 강조한 선 드로잉적 요소로 장소를 강하게 나타낸다. 예를 들어 회색 건물을 노랑색으로 바꾸어 차가운 건물에 따뜻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본인 작업의 경우 선적이고 실루엣이 강조되면서 내용이 없는 형태만 존재하여 마치 뼈대만 남은 텅빈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색선 또는 면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장소를 표현했다.



[작품 1] Motion - restart, 110 × 74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1]의 장소는 성신여대 미술대학 건물(조형1관)이다. 일반인에게는 건물로 보이겠지만 본인에게 있어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이다. 이 건물은 본인이 다닌 미술대학의 건물 외관으로 미술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금의 본인을 보다 그림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첫 번째 장소이다.

본인의 작업은 주로 주관적인 시각으로 선을 이용해 1차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 특히 포토샵(Photoshop)으로 석판화(Lithograph)의 판처럼 여러 개의 레이어(Layer)를 제작하여 중첩한 후 흔들리고 움직이는 장면을 구성하여 나만의 공간을 표현한다. 포토샵(Photoshop)은 디지털 매체로 제작하는 것이며 수정과 유연성이 없으나 석판화(Lithograph)는 해먹(Lithographic writing ink)이나 리도펜슬(Litho pencil)을 사용하여 직접 레이어(Layer)의 형태로 그려 넣음으로써 포토샵(Photoshop)보다 자유로운 드로잉(Drawing)이 가능하고 회화적인 느낌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우연적인 선이 들어가고, 예칭

(Etching)방법에 따라 새로운 조형적인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작품 1]은 화면을 검정색(Black)의 선과 청회색(Blue gray) 계열의 선을 단계적으로 이용하여 배경을 만들고 입체적인 공간 구성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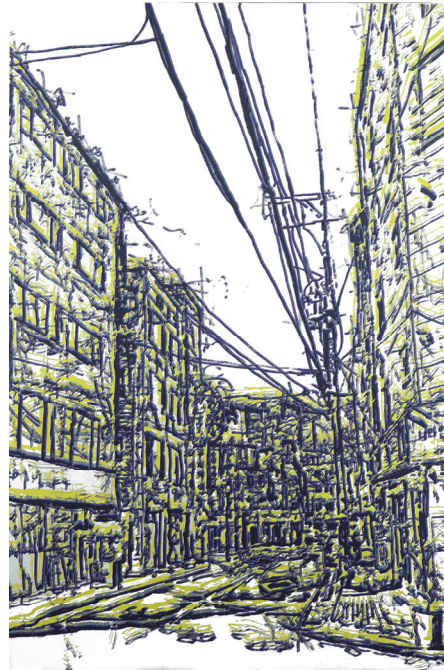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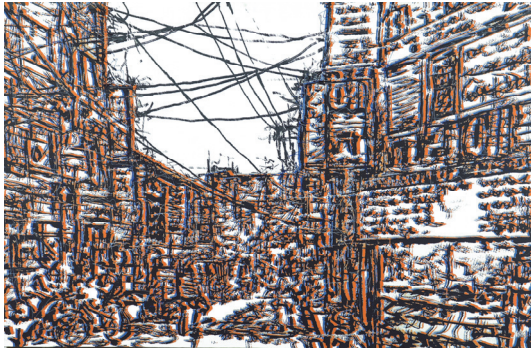
회색 계열(Gray) 그라데이션(Gradation)의 중첩적인 면은 외관 벽도 벽이지만 처음 미술대학에 들어섰을 때의 긴장감과 내면의 차가운 감정이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 장소이면서 감정이 들어간 공간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특정 장소로 다가오고 노랑색(Yellow)이 중앙에 들어감으로써 노랑(Yellow)이 갖고 있는 유쾌함과 친절 그리고 낙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했다.

노랑(Yellow)은 본인이 예전에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많이 사용하던 색이며 명랑하고 쾌활한 느낌이었다. 낙관주의자들은 태양의 성품을 가지며 그들의 색은 노랑(Yellow)이라고 표현한다. 노랑(Yellow)은 환하게 빛을 발하고 미소 짓는 색, 친절함을 나타내는 주요색으로 쓰이기도 한다.¹⁷⁾

[작품 1] 작업에 나타나는 주요한 요소인 면-레이어(Face-Layer)는 건물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보라색(Violet)의 선으로 장소를 강조하고자 했다. 검정색(Black)과 금색(Gold)을 펜 드로잉(Pen drawing)한 이유는 중첩된 선의 강렬함과 이질감을 중화시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으면 했다. 본인도 이 장소를 기계처럼 무의미하게 이동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긴장과 낮은 감정 이외에도 나의 새 출발과 낙관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동한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17)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p.144. 참조



[좌 작품 2, 우 작품 3]

[작품 2] Motion - looking for things, 65.1 × 100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3] Motion - restart2, 100 × 65.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2]와 [작품 3]도 [작품 1]처럼 본인이 주관적 시선으로 선의 중첩을 통해 개인적 공간의 구조를 형성했다. [작품 1]과 다르게 특정장소가 아닌 거리 전체를 강조하려 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으로 기본 장소의 형태를 구성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감정은 이에 반대되는 색을 이용하여 장소를 표현했다. 건물 외곽에 있는 전선(전봇대)은 공간감을 형성하는데 있어 시선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2개의 레이어(Layer)만 중첩해서 장소를 강조했다.

작업에서 중심으로 표현한 거리(장소) 전체에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전선을 제외한 모든 거리의 레이어(Layer)를 중첩시켜 특정장소의 공간을 색과 선으로 그려낸다. 본 작업은 완전 초창기 화면의 내용적 측면을 생

각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더더욱 심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고 화면 전체에 거리의 외곽선을 레이어(Layer)로 중첩시키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작품 2]는 방산시장의 거리이다. 방산시장의 공간은 첫발을 내딛는 시작점에 남다른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 작업이다. 본인은 이 장소에서 특수한 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었고 시장에 가는 마음의 경로, 흡사 복잡한 지도의 그림처럼 선을 그렸다. 본 작업에서 강조된 부분은 자유로운 선을 통해 이동 경로를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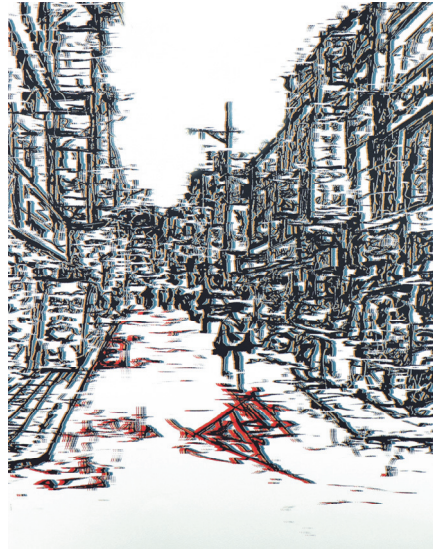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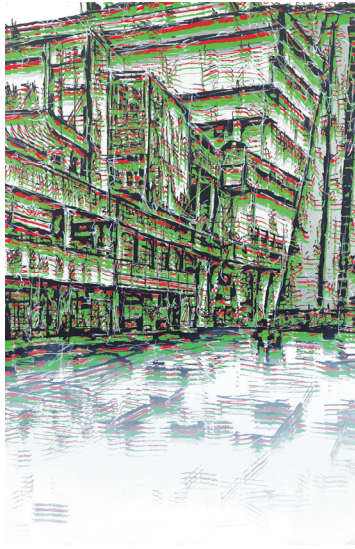
아울러 외출의 즐거웠던 감정에 의미를 두고 주황색(Orange) 선으로 강조하여 즐거움의 감정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주황(Orange)은 즐거움과 사고, 흥겨운 일을 연상시킨다. 빨강(Red)과 노랑(Yellow)은 너무 대립적이어서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주황이(Orange) 들어가면 이 둘을 연결하며 조화롭게 흥겨워진다.¹⁸⁾ 이러한 흥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검정(Black)의 선과 회색 계열(Gray)의 선, 파란색(Peacock blue) 선으로 1차적인 바탕을 형성했다. 또한 거리의 공간감을 보여주기 위해 청회색(Blue gray) 그라데이션(Gradation) 면을 추가하여 공간을 표현했는데 주황(Orange)의 레이어(Layer)는 1차공간인 검정색(Black) 레이어(Layer) 뒤에 배치함으로써 거리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바탕에 사용한 파란색(Peacock blue)은 주황(Orange)의 보색관계로 특히 주황색(Orange)을 강조하기 위해 뒤에 배치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작업은 회색(Gray)과 블랙(Black), 파란색(Blue)으로 중첩된 레이어(Layer)를 펜을 이용하여 중첩된 선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3]도 [작품 2]와 비슷한 과정으로 제작되었는데, [작품 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풍경은 학교 주변 화방이 자리하고 있는 거리이며 화방 앞의 거리는 본인의 전

18)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p.321.

공과 매우 밀접한 장소이기에 이 역시 주관적 공간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작품 3]도 [작품 2]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니는 공공의 장소이고 특정한 곳이 아닌 거리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작품 1]과 같이 드러나는 이미지 전체를 노랑(Yellow)의 레이어(Layer)를 사용했다. 해당 공간과 노랑(Yellow)이 갖고 있는 쾌활함과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였고 상반된 보라색(Violet)의 레이어(Layer)를 중첩시켜 장소를 표현함으로써 보색의 느낌으로 명쾌함을 더하고자 했다. 본인의 작업 안에는 특정 공간을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 보색대비(補色對比)¹⁹⁾를 많이 사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동한 거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전선을 제외한 모든 거리를 보색관계의 색의 선을 사용함으로써 장소의 이미지를 색상이 들어가도록 대비를 주어 조화를 이루도록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함이다.

19)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 각각의 색이 보다 강렬하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을 나란히 두고 보았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인해 각각의 색이 보다 강렬하고 선명해 보이는 현상이다. 이는 두 색의 보색 잔상(補色殘像)이 일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색의 대비 중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바다 위 노란 배나 부표가 선명하게 잘 보이거나, 초록 잎 사이에 빨갭게 익은 감이나 사과색이 보다 두드러지는 현상은 이러한 보색대비에 의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색대비 [Complementary contrast, 補色對比] (두산백과)
Naver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63178&cid=40942&categoryId=33048>



[좌 작품 4, 우 작품 5]

[작품 4] Motion - shopping, 200 × 65.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5] Motion - passion, 163.7 × 72.7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4], [작품 5]의 작품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이동한 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감정을 드러내어 나만의 상징적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사람마다 공공장소나 불특정한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각자의 목적이 다르면 개개인의 감정이 다른 장소가 되기도 한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동하기도 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본인도 거리를 목적을 가지고 이동을 할 때도 있고 없이 이동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본인은 하나의 순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화면에 나타내고 싶었다.

[작품 4]는 작업재료를 구매하기 위해 대형 화방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지나쳐가는 강남 고속터미널의 풍경이다.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 가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동한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이 이동하는 거리의 동선은 무의미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 본인의 존재감을 느끼고 각인되기도 한다. 또한 이 거리는 본인에게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거리가 특히 본인에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였

다. 하나의 감정은 공적인 일로 가는 공간이어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무색 무미 무취의 공간이었고 또는 번거롭고 귀찮은 느낌이 들었던 곳이었다. 또 하나는 그 반대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내 감정에 충실한 본인의 열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빨강(Red)²⁰⁾ 선을 사용했다. 이와 반대로는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녹색(Green)의 선을 사용했다. 녹색(Green)이 독을 상징하게 된 것은 예술 물감 때문이다. 구리 조각을 초에 담가두면 구리 조각에 녹색 녹이 생긴다. 이 녹을 긁어내어 풀이나 계란 노른자, 기름 등의 접착제와 섞으면 화가들이 물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녹색은 오래된 동판 지붕에서 볼 수 있듯이 색이 진했다. 이 색은 ‘구리 녹색’(Copper green)이라고 부르며 독성을 가졌다.²¹⁾ 또한 본 풍경의 형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검정색(Black)의 선을 맨 앞으로 배치했다. 이는 이 거리에 더 넓은 공간감을 보여주기 위해 1차로 흰색(White)의 아크릴 물감(Acrylic paint)을 통해 아래 하단부터 중앙 근처까지 흰색 그라데이션(Gradation)을 통해 오버랩(Over lap)을 했다. 이는 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흰색 판넬을(White panel) 이용하여 확장된 거리감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흰색(White)의 그라데이션(Gradation)과 중첩된 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흰색(White)의 펜(Pen)으로 드로잉(Drawing)을 추가했다.

[작품 5]는 4호선 성신여대 지하철역 근처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작업도 학교로 이동하는 경로의 한 부분을 나타냈다. 이 거리는 특히 평상시 본인의 의욕과 열정을 나타내는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간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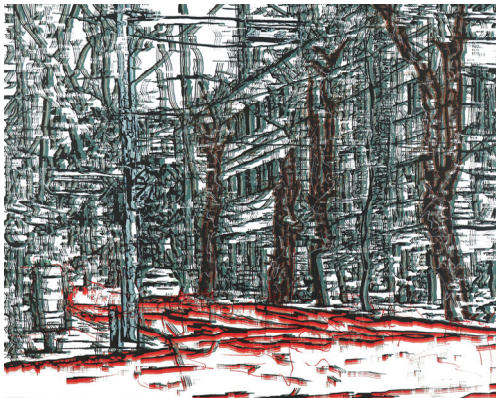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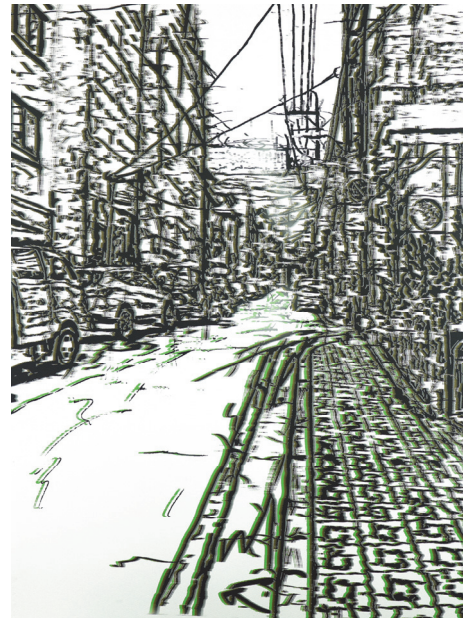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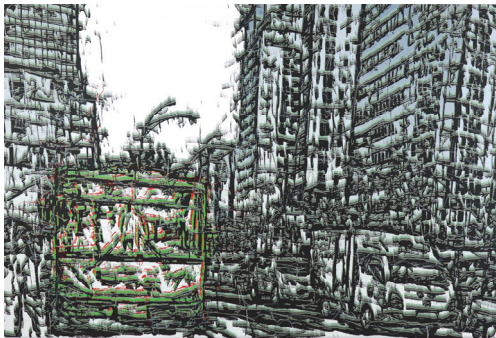
본 풍경은 주로 도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본인의 작업에서 항상 그래왔듯 검정색(Black)의 선으로 기본 형태를 잡고 [작품 2]와 [작품 4]에서 사용했

20) 빨강은 자극이 강렬하여 심리적으로 정열, 흥분, 적극성. 광기(狂氣)를 표현하는데 쓰이며, 태양, 불, 피, 혁명을 상징한다.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활기와 야망을 갖게 한다. 『색채용어사전』, 박연선 지음, 도서출판 예림, 2007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0001&cid=42641&categoryId=42641>

21)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p.60

던 주황(Orange)과 빨강(Red)의 선을 중첩해 열정의 이미지(Image)를 연출하고자 했다. 건물과 주변부는 검정색(Black)의 선으로 동일하게 형태를 강조되 회색(Blue gray)의 선, 채도가 낮은 주황색(Orange)의 선을 사용함으로써 길을 강조하였다. 빨강(Red), 검정(Black), 하얀색(White)의 펜(Pen)을 사용한 것은 이질적으로 나누어진 색선의 중첩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드로잉(Drawing)을 추가하여 장소를 구현한 것이다. 이 작품도 [작품 4]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사각형의 하얀색 판넬(White panel)을 추가하여 보다 긴 거리감을 나타내고자 했다



[좌측 상단 작품 6, 우측 작품 7, 좌측 하단 작품 8]

[작품 6] Motion - hate 74 × 110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7] Motion - hate2 100 × 72.7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8] Motion - really hate 72.7 × 9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6, 7, 8]은 본인이 평소에 기계처럼 이동하는 경로, 수단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욕이 없고, 싫어하는 감정,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거리를 상징하는 이미지(Image)를 보여주고자 한다. [작품 4]가 양가적 감정이 혼재된 작업이었다면 [작품 6, 7, 8]은 본인의 짜증(화)이 드러나는 감정이 실린 작업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감정인 희노애락(喜怒哀樂) 이외에도 자세하게 묘사하기 어려운 짜증, 실증, 나태 등 부정적인 감정들이 존재한다. 특히 내가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의욕 없고 가까스로 나를 독려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바로 [작품 6], [작품 7], [작품 8]은 본인이 평소에 무심의 단계도 넘어서 괴롭거나 힘들었던 기분으로 이동했던 경로, 수단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욕조차 희미한 감정,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을 갖는 거리를 작업으로 나타냈다.

[작품 6]은 출퇴근, 등하교를 위해 매일 같이 이동하는 버스정류장의 풍경을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쉬고 싶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시간과 같은 경로로 가야만 하는 짜증 섞인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표현에는 무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가지고 본 풍경을 표현했는데 본인은 강제로 이동해야 하는 장소가 걸으면 보기에 누구나 평범하게 보는 시각적인 작업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생활의 한 단면으로 보이길 원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간 작업인 만큼 본인이 싫다는 감정을 보이기 위해서 [작품 4]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독을 상징하는 녹색(Green)의 선으로 교통수단을 그렸고 실제로 본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색도 동일한 색상이다. 녹색(Green)의 의미적 측면을 본인은 주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 이 작업도 바탕은 검정의 선으로 형태를 나타내고 주변요소를 채도가 낮은 회색(Green gray)의 선을 중첩함으로써 녹색의 교통수단을 강조하고자 했다. 회색(Gray)은 검은색(Black)과 흰색(White)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그다지 자기주장을 하지 않는 조화의 색이라고 말해진다.²²⁾

이와 반대로 돌아갈 때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보색인 빨강(Red)의 레이어(Layer)로 일부 긍정을 느끼도록 사용하였다.

[작품 7]은 [작품 6]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학교 중문과 후문에 진입하는 거리이다. [작품 7]은 [작품 6]과는 다르게 긍정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풍경은 등교와 출근을 하는 경로로만 이동했기 때문에 [작품 6]과 동일한 색이 들어간 초록(Green)의 선만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동할 당시 본인이 바라본 풍경은 공사현장과 미세먼지가 많은 거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갈색이 섞인 회색(Burnt umber)의 선으로 풍경을 나타냈다. 또한 먼 거리에 있는 장소는 희미하게 보이기 위해 포토샵(Photoshop)의 화이트 에어브러쉬(White-Airbrush)를 이용하여 뿌연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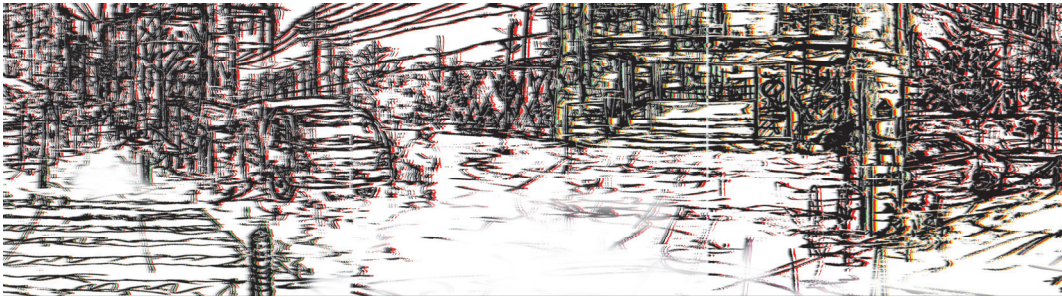
[작품 8]은 학교 앞 사거리를 표현한 것이다. 이곳은 본인이 늘 학교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학교 앞 사거리에서는 일상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리였다. 본인에게 일상의 고민은 누구나 생활의 한 단면처럼 일어나는 부정의 고민이었다. 이동해야 할 경로를 선택하거나 집을 향해 가는 목적을 갖고 가더라도 늘 똑같은 수만은 없었던 아주 평범하지만 귀찮은 선택에 대한 생각을 하던 공간이다. 항상 여유는 있지 않은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을 부정의 이미지(Image)로 나타내고자 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처럼 교차하고 대비되는 명암처럼 어떤 때는 밝지만 어떤 때는 어두워 보이는 풍경을 나타내기 위해 화면 안 공간에 채도가 낮은 회색(Green gray)의 레이어(Layer)로 표현했다. 길거리 도로는 같은 색상의 선을 사용하면 자칫 특징이 없고 평면적이라 보색인 빨강색(Red)을 넣어 감정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빨강(Red)은 [작품 4], [작품 6]과 다르게 부정의 감정을 나타내고자 사용했는

22) 회색은 존경할 만하고 중립적이며, 위엄 있고, 명민한 느낌을 준다. 모든 색을 흡수해서 안도감을 주는 색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서도 스마트한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비즈니스 정장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 가운데 하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GRAY - 보수적이면서 깔끔한 이미지라면 회색이다 (일 잘하는 그녀의 컬러 스타일북, 2011. 9. 14., 황정선)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48458&categoryId=42820&cid=42820>

데 원래 색채학적으로도 빨강색(Red)은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창피할 때, 화날 때, 흥분했을 때 우리는 얼굴이 빨갱게 된다. 독일에서는 이성을 잃은 사람은 ‘빨강만 본다.’고 한다. 투우장의 소처럼 화가 나서 맹목적인 공격만 퍼붓는다는 뜻이다.²³⁾ 그래서 본인은 작업 안에 빨강(Red)과 회색(Green gray)의 감정을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펜(Pen)으로 드로잉(Drawing)을 추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 않더라도 색의 레이어(Layer)를 통한 공간을 표현하여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어 한 순간이지만 부정적인 기억을 작업으로 각인시켰다. 부정적 감정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다.

23)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p.91.



[상단 작품 10, 하단 작품 9]

[작품 9] Motion - ing, 100 × 65.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10] Motion - ←→, 60.6 × 218.1cm, pen on archival pigment print, 2018

[작품 9, 10]은 본인이 대학원 과정 수료 전에 다니던 이동 경로를 표현한 작업이다. 이 또한 [작품 5, 6, 7]처럼 3개의 장소를 이어 붙여 이동 경로를 표현하고 색선으로 중첩하여 장소이동을 통한 주관적 감정전이를 보여주고자 한 작업이다.

[작품 9]는 성신여자대학교 정문 앞 거리이다. 이 작업은 이제는 수업도 없고 조교도 아닌 내가 공적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학교에 드나들며 생겨난 새로운 감정을 표현한 작업이다. [작품 1]의 작업에 표현한 장소로 시작해 [작품 9]의 거리로 이동하여 재료구매, 자료수집, 외부 업무, 논문지도 등 본인은 매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 풍경은 블랙(Black)과 흰색(White), 회색(Gray)의 선으로 건물 및 설치물, 순간에 보였던 것 등을 표현했다. 거리를 이동할 당시의 시간대와 본인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이동 경로에 노랑(Yellow), 주황(Orange), 빨강(Red)의 색으로 수채화(Watercolor)의 번지기 효과(Blur)로 경로를 표현했다. 노랑(Yellow)의 흥겨운 인상을 주려면 주황(Orange)과 빨강(Red)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랑-주황-빨강(Yellow-Orange-Red)은 즐거움을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세 가지 색조이다. 삶의 즐거움, 적극성, 에너지, 시끌벅적함도 모두 이에 속한다.²⁴⁾

면과 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레이어(Layer)의 연결을 위해 검정색(Black), 금색(Gold), 은색(Silver), 하얀색(White)의 펜(Pen)으로 드로잉(Drawing)을 추가하여 장소를 나타냈다.

[작품 10]은 과거 본인이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이동 경로다. 출발지점인 집 앞 거리, 환승 지점인 신설동역, 도착지점인 성신여대 주변 거리를 하나의 화면으로 연출하고자 했다. 본인은 세 가지의 풍경이 각각 다른 장소이지만, 본

24)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p.145.

인의 주관적 시선으로 파노라마(Panorama)의 한 장면처럼 길게 구성하여 개인의 공간을 형성했다.

이는 3개의 색으로 본인이 하나의 감정이 아닌 3개의 감정이 혼재된 풍경과 이동경로 중의 한 순간을 나타내고자 했다. 노랑(Yellow)의 선은 [작품 1]과 같은 의미로 본인의 첫 대학원 생활의 시작과 낙관적인 미래, 둘째는 [작품 4], [작품 6]의 의미와 같은 빨강(Red)의 열정과 긍정, 셋째는 [작품 6], [작품 7]과 동일한 녹색(Green)의 부정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

세 가지의 선, 검정(Black)의 선과 회색(Gray)의 선이 중첩되면서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 레이어(Layer)에 존재하는 색의 펜(Pen)을 이용하여 드로잉(Drawing)을 추가하였다. 또한 풍경의 넓은 공간 연출을 위해 포토샵(Photoshop)의 화이트 에어브러쉬(White-Airbrush)의 기법으로 나름대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장면으로 연출되더라도 한 순간이지만 여러 가지의 감정이 존재하고, 의미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Ⅲ. 결 론

이 논문은 2018년도 석사 청구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분석한 글로써 본인이 이동하고 방문한 장소에 감정을 이입하여 작업한 작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본인의 작업은 그림의 소재인 장소와 내재된 의미를 ‘나’의 주관적 시선으로 특정 공간을 표현하여 재구성했다. 본인이 이동한 장소의 한 곳, 혹은 어떤 목적을 갖고 방문한 공간 등은 누군가에게 사소하지만 본인에게는 작업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작업으로 표현한 장소는 그 당시 본인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소재였다. 또한 자유로운 선과 색으로 장소성에 대해 재해석하여 다양한 방법 - 선의 중첩, 색의 선택 등 - 으로 화면 속에 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본인이 경험한 과거의 기록, 특히 감정의 기록에 대한 탐구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라면 목적이 분명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거나 성격과 상관없이 항상 이동하는 일상의 거리에서도 어느 한 장소는 각인이 되고 그 의미와 감정이 존재하며 이후라도 자신만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계기는 있을 것이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바로 그 움직임이 중요하였다. 본인은 어느 순간 직접 움직임으로써 중요한 경험과 감정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그림이라는 방법으로 한 장소에 본인의 존재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내 자신’이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관객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화면으로 표현된 작품 연구를 통해 주관적 장소가 주는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고 공감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현재의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시선으로 보는 장소라고 생각했

고, 이를 전통적인 유화(Oil paint)나 아크릴화(Acrylic painting)가 아닌 다르게 보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디지털 판화(Digital print)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화면의 바탕은 먼저 무채색(Achromatic color)의 색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형태를 표현하고,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다양한 색의 선과 면을 추가하여 자신만의 공간을 형성했다. 그 날, ‘나’의 ‘기분’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작업 방법은 본인이 나 자신만의 드로잉(Drawing)으로 크고 작은 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도 갖게 해 주었다. 나아가 화면 안에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깊이를 구성하고 싶었는데 이는 수업에서 조언을 얻어 그라데이션(Gradation)의 면을 사용하면서 해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작품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나’와 타인이 같이 있던 장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내’ 그림을 보는 관객도 자신만의 특정 공간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본인의 작업이 한층 확장할 수 있다는 증거이고 이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아쉬운 점은 아직 작업에 적용하지는 못한 방법인데 카메라(Camera)의 렌즈(Lens)를 통해 매우 넓은 화각(광각)과 좁은 화각(망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점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로 본인의 작업에서 상술한 방법과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가진 판넬(Panel)을 이용하여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본인의 작업에서 더 많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의 주관적 시선으로 느낀 특정 장소의 구성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의 화각 외 광각의 시점도 같이 이용하여 왜곡된 형태가 들어간 공간을 형성하고 더 넓은 거리감을 표현하여 다각형이나 원형의 판넬(Panel) 사용이 주관적 공간을 한층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색에서도 채도가 높은 색상의 레이어(Layer) 외에도 파스텔 계열(Pastel)의 색과 금색(Gold) 및 은색(Silver)의 색을 사용한 레이어(Layer)로 더 많은 감

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같이 화면에 실험해 볼 것이다. 주된 색과 그에 따른 근접 색을 연구하여 눈으로 보이게 한층 자연스러운 화면을 구성하고 싶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색에 대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마도 이 연구를 바탕으로 방법적 측면을 좀 더 개선하고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도 작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장소를 표현하는 구성형식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해 보고 더 많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공간(장소)이 있음으로써 생활이 있고 더 좁은 의미로 나 자신이 생활하는 의식주(衣食住)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본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화각을 통한 여러 시점의 주관적 공간을 만들어 구체적이고 고정적인 장소 외에도 불특정한 심상 공간을 표현하여 보다 객관화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본인의 작업이 환영(幻影)이긴 하지만 보는 이에게 장소가 가진 저마다의 기억을 회상할 수 있고 각자의 추억을 되돌리면 좋겠다. 기억 속에 희미하게 존재했던 그 곳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김종옥, 「색상과 감정표현에 따른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네이버 국어사전, 개인적공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4891526807640028fa45a08ca4af723>

네이버 국어사전, 의식주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6785c2507064ea8ac6539e1250faf1e>

네이버 지식백과, 보색대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63178&cid=40942&categoryId=33048>

네이버 지식백과, 색채용어사전 중 빨강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0001&cid=42641&categoryId=42641>

네이버 지식백과, 일잘하는 그녀의 컬러 스타일북 중 GRAY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48458&categoryId=42820&cid=42820>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예담, 2002

위키백과, 그라데이션

<https://ko.wikipedia.org/wiki/%EA%B7%B8%EB%9F%AC%EB%8D%B0%EC%9D%B4%EC%85%9>

위키백과, 행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6%89%EB%8F%99>

조설화, 「선과 색면을 통한 도시 내면의 조형적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주우, 「장소만들기 형성에 있어서 스토리 텔링이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중국 항주 인상·서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한국현상학회, 「예술과 현상학」, 철학 과 현실사, 2001 (성영미,
「선(線)으로 표현한 체험적 공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참고)

한진현, 「선의 중첩에 의한공간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허버트 리이드(H. Read),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69 (이영숙, 선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口 참고)

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ive Place through Line and Color

– Focusing on Researcher's work –

Park, Seong Soo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on expression and place through lines and colors, focusing on works exhibited for requesting a master's degree in 2018. My work focused on pictorial expression with the feelings and gazes subjectively feeling the scenery of the places I had actually visited.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convey the meaning and empathize with viewers by putting emotions on subjective places or places that have moved through work.

I think that human movements subjectively imply big and small meanings even for a moment. Therefore, a place is a space where humans stay or act, and at the same time, it can constantly move with a subjective meaning, which I thought was a characteristic of human instinct.

In this way, I give personal meaning for a moment in a place (or

street) that moves like a machine without any meaning and sometimes look back on the past through a specific landscape. It expresses various emotions depending on the place responding to the rapid passing of time to communicate with a space that seems to be stuffed with time.

To this end, I tried to emphasize inner feelings and rhythm by creating overlapped layers in various colors while I'm drawing undefined free line movements in the work. Historically, spaces or places have been compared to vessels that contain the mind in which the human mental activity takes place. Therefore, space(or place) can usually be viewed as a place where objects can exist or something can happen in lexical meaning, but narrowing the meaning and looking back from a personal point of view, it can be my only single space and a subjective place that causes emotions.

In this study, I mentioned the place that remains as a meaning to the individual "I" and the importance of that place, and explored and described how to effectively visualize the color of emotions or the shape of faces revealed in different places.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 the method and the expressive aspect of the work were reconstructed.

The important part of my work is for making audiences ask themselves 2 questions: 1.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say that my own space?" 2. "If there is, what kind of place would cause a certain emotion to me?"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remind audiences of the uniqueness of each individual about space(or place) by attaching meaning to the special emotions given by it. In another aspect, I hope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form a consensus that people living in the present are leading a life of seeing, feeling, and acting in space, place, and landscape that are not so different.